일 주 문



녹원 대종사 49재

웅산 김천 직지사 주지 스님은 2월 9일 직지사 만덕전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영허당 녹원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나가노 금강사 주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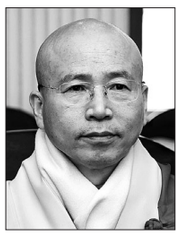
법현 서울 열린선원장 스님은 4월 8일 열린선원 자매사찰인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 취임한다.



전국만해백일장 개최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서 제39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종단협 신임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



종단협 신임 사무처장에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을 임명했다.

진경 스님은 현호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사미계)했다. 금정총림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조계총림 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윤호섭 기자**

진주불교회관 108인 후원회 발족



(사)진주불교회관은 1월 31일 포시즌 스카이라운지에서 제10·11대 이사장 이·취임식 및 제1차 108인 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선·철현·성각·지산·능륜·인법·수안·원명 스님, 이창희 진주시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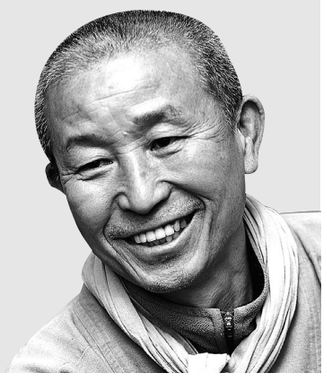
이날 취임한 홍수승 이사장은 "지역불교 발전과 열린 불법마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이가은 전임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이임사를 했다.

평안사 보선 스님은 "진주불교회관이 지역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불교발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진주불교회관은 이와 함께 제1차 108인 후원회를 발족하고, 무료급식소 운영을 비롯한 자비나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1000만명 함께 모여 평화를 노래하자"

Interview

은빛순례단 불교대표 도법 스님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60세 이상 은빛순례단 출범
걷기보다 지역별 대화 초점
불자들 더욱 많이 참여해야

"힘으로 싸워 겨루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와 관용, 허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빛순례단은 각 지역을 방문해 대화의 장을 열고, 의미 있는 곳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할 것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한반도평화만들기 은빛순례단'에 나선다. 은빛순례단은 한반도를 핵무장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서약한 6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은빛순례단에 불교계 대표로 나서는 도법 스님은 3월 1일 순례에 앞서 은빛순례의 키워드로 '평화 방식'과 '지역 대화'를 꼽았다.

도법 스님은 "이번 은빛순례는 단순히 오래 걷는 방식이 아닌, 지역 대중과 만나 연찬을 놓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빛순례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한 도법 스님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스님은 "은빛순례는 오로지 평화로 진행된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불교계는 소극적이다. 종단 단위로 나서야 할 문제인데, 현재 은빛순례에 참여하는 스님은 나 혼자"라며 "사실 이번 순례는 걷기 수행이자 걷기 명상이기도 하고, 기도라면 평화를 발원하는 최고의 기도일 것이다. 스님뿐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함께해 평화운동을 주도하면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교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불교계의 관심을 독려했다.

순례는 2019년 3월 1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20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 100년을 염두에 둔 것. 도법 스님은 "독립선언 당시 우리는 스스로 평화의 한반도 선언을 했다. 이처럼 우리도 1000만 명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은빛순례단의 여정을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평화의 한반도, 자유의 대한민국을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도법 스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은빛들이 아이들에게 줄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은빛의 걸음걸음이 저녁노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빛순례단은 60세 이상의 순례단과 60세 미만의 운영팀으로 구성된다. '은빛'은 하나의 도구인 셈. 결국 남녀노소 모두가 평화를 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빛순례단의 여정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 서약운동'으로 시작, 전국에 걸쳐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순례를 진행한다. 코리아둘레길과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국토순례가 기본이지만, 형편에 따라 원하는 만큼만 걸어도 된다. 걷는 게 힘들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연찬과 민회 대화의 장에만 참여할 수도 있다.

서약 또는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약은 다음카페 '한반도평화만들기 1000인 실버순례단'(cafe.daum.net/PeaceOnly1000)에서 가능하다.

"봉사 실천하는 법우회로 성장을"

함승현 제9대 서울교통공사 법우회장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는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 의해 운영된다. 바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다. 2017년 서울 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합병했고, 이에 앞서 불자직원들의 신행모임인 메트로법우회와 도시철도공사법우회 또한 서울교통공사법우회로 통합을 선언했다.

1년이 지난 2월 12일, 서울교통공사법우회가 통합 후 첫 회장으로 함승현 서울교통공사 법우회장(관음행)〈사진〉을 배출했다. 함 회장은 현재 조계종 산하에 서울메트로 법우회가 속해 있어 메트로법우회 기준 9대 회장이다.

이날 취임법회를 시작으로 2년간 서울교통공사법우회를 이끌 함 회장은 "봉사와 나눔실천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가는 법우회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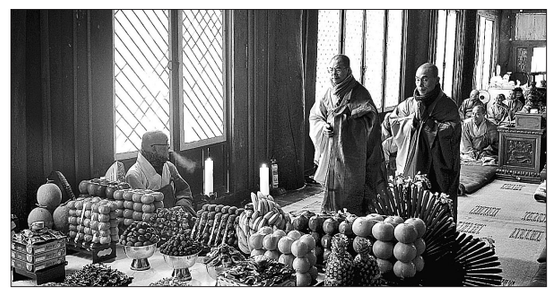
현재 양 법우회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함 법우회장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상호 소통과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 법우회장은 2009년 서울메트로 제1대 봉사단장을 맡는 등 공사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이끌어 왔다. 메트로법우회서도 포교실장을 맡아 봉사조직 관리로 역량을 회향해왔다.

함 회장은 "1991년부터 정기적으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합 이후 라오스 성지순례의 호응이 높았다. 성지순례를 상하반기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진행해 왔던 서울역 노숙자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통합과 화합의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둘째 주 화요일 진행되는 정기법회 외에도 일요법회를 신설하고, 명찰 템플스테이, 안전운행 기원제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신심 증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봉사활동"이라며 "법우회가 앞장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법향을 널리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고창 선운사, 운기 스님 추모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2월 4일 백양사, 대흥사, 불국사의 강주를 역임하고 화엄종주 설파, 백파, 설유, 영호의 교지를 계승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운기당 성원 대종사 36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학인스님들과 선운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재에 동참한 스님들은 운기당 성원 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림硏, 철원서 생태기행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2월 3일 철원 도피안사 사찰림에서 개소 후 첫 생태기행을 실시했다. 이사장 종수 스님을 비롯해 부소장 박희준 박사 등 20여 회원들은 도피안사가 위치한 화개산 일대 사찰림을 살펴봤다. 또 이에 앞서 철원 승일교와 민통선 일대도 함께 탐방했다.

종수 스님은 "앞으로도 생태와 문화가 함께 하는 현장을 찾아 탐방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정읍 일광사, 사랑의 白米나눔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봉사회는 2월 2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에게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정읍시 관내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어르신들의 설 명절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승천 스님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며 "시민 모두가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화불교

- 전통한옥 철거, 매매 전문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개보수
- **40평 법당** 이익공, 팔작지붕, 상태 A급, 3월 철거예정, 급매
- **40평 요사채용** 재목(ㄱ형), 다그라스 재목(가공 상태). 저렴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 7층석탑(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서울 시내). 년 수익 보장. 부지 1,200평 21억(잔고 증명 필요)

010-3789-3327

탈종공고

• 법　　명 : 혜원 (이금분)

• 승려번호 : 0177-083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제12기

송강(松江) 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學人)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길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